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담당: 신희진, 이수정, 최한수)

피고발인 1. 정몽구-

2. 정의선

3. 김동진

4. 김너명

5. 한규환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1. 피고발인들에 관하여

피고발인 정몽구는 1999. 3. 10.부터 현재까지 (주)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 1999. 7. 16.부터 현재까지 (주)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 1998. 3. 4.부터 현재까지 (주)현대모비스(이하 현대모비스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발인 김동진은 2001. 9. 8.부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발인 김뇌명은 2001. 9. 22.부터 2003. 10. 17.까지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를 지낸 자, 피고발인 한규환은 2002. 1. 1.부터 현재까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피고발인 정의선은 한국 2대 재벌그룹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인 정몽구의 외아들로서, 2005. 3. 11.부터 현재까지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피고발인 정의선의 (주)글로벌비스(이하 글로벌비스라고 합니다) 설립 전후의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 12.~ 2000. 12.	현대자동차 이사, 구매실장
2001. 1.~ 2001. 4.	현대자동차 상무이사, 구매실장
2001. 4.~ 2002. 2.	현대자동차 상무이사, 국내영업본부 서비스부문
2002. 2.~ 2003. 1.	현대자동차 전무이사, 영업본부장
2003. 1.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자동차그룹기획총괄본부 부분부장, 기아자동차 부사장, 기아자동차 기획실장
2005. 3. 현재	현대자동차 사장(비등기), 기아자동차 사장(등기)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사장(등기)

2. 범죄사실 요지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의 기회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제3자에게는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요구되는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이하 위 3개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이라 합니다)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자동차사업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운송, 물류 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설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하지 않고, 글로벌비스에게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을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의 운송, 물류 분야의 계약체결을 몰아주어, 글로벌비스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회사들로부터 안정적 매출처 확보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글로벌비스가 설립된 때인 2001. 2.부터 2004년 말 까지, 현대자동차로부터 50,274,000,000원, 기아자동차로부터 25,837,000,000원, 현대모비스로부터 21,528,000,000원, 합계 97,639,000,000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으로 하여금 이로 인하여 글로벌비스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인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결국 글로벌비스와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으로 하여금 합계 1조 97,639,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의 규모에 대하여

글로벌비스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각 자산총계,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대자동차

2000년 매출 18조 2,309억원 / 영업이익 1조 3.132억원

<표 1.> 현대자동차의 자산총계 및 영업이익 등

(단위: 백만 원)

연도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12.	2005. 12.
자산총계	19,632,846	20,867,273	24,250,145	24,700,854	26,561,220
부채총계	10,535,035	10,406,502	11,752,220	11,335,743	11,608,362
자본총계	9,097,811	10,460,771	12,497,925	13,365,111	14,952,858
자본금	1,476,454	1,476,454	1,478,603	1,480,752	1,482,905
매출액	22,505,093	26,336,922	24,967,265	27,472,457	27,383,737
영업이익(손실)	2,096,574	1,606,161	2,235,718	1,981,414	1,384,143
경상이익(손실)	1,666,018	1,983,487	2,347,379	2,517,409	2,739,058
당기순이익(손실)	1,165,399	1,443,545	1,749,371	1,804,108	2,314,647

나. 기아자동차

2000년 매출 10조 8,060억 원 / 영업이익 3,531억 원

<표 2.> 기아자동차의 자산총계 및 영업이익 등

(단위: 백만 원)

연도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12.	2005. 12.
자산총계	8,438,466	9,112,648	11,211,132	10,871,468	11,241,785
부채총계	5,045,450	5,018,964	5,868,953	5,772,379	5,989,417
자본총계	3,393,016	4,093,684	5,342,179	5,099,089	5,252,368
자본금	1,847,987	1,848,652	1,848,652	1,848,652	1,848,652
매출액	12,356,346	14,056,450	12,839,881	15,257,742	15,999,356
영업이익(손실)	522,241	658,493	812,440	502,455	74,002
경상이익(손실)	424,151	801,310	853,599	829,469	689,405
당기순이익(손실)	552,235	641,379	705,423	690,569	680,904

다. 현대모비스

2000년 매출 2조 9,647억원 / 영업이익 3,574억원

<표 3.> 현대모비스의 자산총계 및 영업이익 등

(단위: 백만 원)

연도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12.	2005. 12.
자산총계	2,693,183	3,262,982	3,785,392	4,659,282	5,454,148
부채총계	1,756,989	1,874,854	1,977,046	2,341,097	2,472,205
자본총계	936,194	1,388,128	1,808,346	2,318,185	2,981,943
자본금	395,036	426,036	428,482	431,973	432,890
매출액	2,964,735	4,134,698	5,306,639	6,435,972	7,547,724
영업이익(손실)	357,439	426,419	606,799	751,783	786,050
경상이익(손실)	420,174	585,473	747,891	968,757	1,049,390
당기순이익(손실)	274,417	403,348	550,632	695,254	831,263

4. 글로비스의 설립과 지분 변동에 대하여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은 2001. 2. 22. 운송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비스를 설립하였는바, 설립 당시 발행 주식 500,600주를 발행가격 5,000원에, 피고발인 정몽구는 발행 주식의 40%, 피고발인 정의선은 발행 주식의 60%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비스는 2002. 7. 499,4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발행가격 5,000원에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이 각 지분비율대로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2004. 11. 피고발인 정몽구가 보유한 주식 4.85%, 피고발인 정의선이 보유한 지분 20.15%, 합계 25%를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하였습니다. 글로비스의 주식은 2005. 12. 26.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표 4.> 글로비스의 지분 구조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12.	2005. 7. 말	2005. 12.
정몽구	40.00%	40.00%	40.00%	35.15%	35.15%	28.12%
정의선	60.00%	60.00%	60.00%	39.85%	39.85%	31.88%
빌헬름센	-	-	-	25.00%	25.00%	20.0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0.00%
자본금(백만원)	2,503	5,000	5,000	15,000	15,000	15,000
변동사유		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상장
주식수 (주)	500,600	1,000,000	1,000,000	3,000,000	30,000,000	37,500,000

5. 피고발인들의 배임의 고의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의 기회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제3자에게는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요구되는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마땅히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의 각 회사의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두어 거래할 수 있었던 운송, 물류 부문을 두지 않고, 글로비스에게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을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의 운송, 물류 분야의 계약체결을 몰아주어,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회사들로부터 안정적 매출처 확보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으로 하여금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글로비스 주식에 대한 높은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을 얻게 하고, 이 사건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매출액은 2001년도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의 경우 약 22조 5,000억 원, 기아자동차의 경우 약 12조 3,500억 원, 현대모비스의 경우 약 2조 9,600억 원에 이르는 바, 자동차사업과의 직, 간접적인 연관성으로 인하여 운송과 물류거래는 반드시 수반되는 거래분야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매출규모에 따른 운송과 물류사업의 수익성의 규모 또한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자산총액은 2001년도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경우 약 19조 원, 기아자동차의 경우 약 8조 4,000억 원, 현대모비스의 경우 약 2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바, 이 사건 피해회사들이 각 회사 내에 운송, 물류 부문을 사업부문으로서 설치하거나, 이 사건 피해회사들이 지분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 운송, 물류 사업부문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물류, 운송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내부화하지 않고, 제3자인 글로비스와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물류, 운송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피해회사들이 물류, 운송 거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이 얻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글로비스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의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바, 피고발인들의 배임에 대한 고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6. 배임행위 -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 글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 피해회사들에 운송, 물류 사업부문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물류, 운송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내부화하지 않고, 글로비스 설립 시인 2001. 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3자인 글로비스와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물류, 운송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몰아주기 거래를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까.

7.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 글로비스의 거래 내역

글로비스는 설립 첫해인 2001년 65억 2,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3년만인 2004년에는 총매출 9,027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696억 4,9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비스의 위와 같은 급성장에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글로비스가 설립된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글로비스의 총매출 중 이 사건 피해회사들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합니다.

<표 5.>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 글로비스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 원)

	2001		2002		2003		200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매출	198,491		374,227		578,769		902,750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185,751	93.58%	344,169	91.97%	501,860	86.71%	727,735	80.61%
현대자동차	85,351	43.00%	147,514	39.42%	210,534	36.38%	311,790	34.54%
현대모비스	41,787	21.05%	75,191	20.09%	89,646	15.49%	108,467	12.02%
기아자동차	41,027	20.67%	74,220	19.83%	117,157	20.24%	153,095	16.96%
기타	17,586	8.86%	47,244	12.62%	84,523	14.60%	154,383	17.10%

주: %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8. 손해의 발생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기존의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적극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의 상실을 초래하는 소극적인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글로벌리스 설립 시인 2001. 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리스가 얻은 영업 이익 및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이 글로벌리스 주식으로부터 얻은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 등은, 이 사건 피해회사들이 물류, 운송부문을 회사 내의 사업부문으로 설치하였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하였더라면 이 사건 피해회사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데 상실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합계가 곧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손해의 합계라고 할 것입니다.

9. 손해의 내역

가. 영업이익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 글로벌리스의 각 매출 규모를 볼 때, 2001.~2004.에 이르는 기간 동안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의 경우 755,189,000,000원, 기아자동차의 경우 385,499,000,000원, 현대모비스의 경우 315,091,000,000원입니다(표 5.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 글로벌리스의 거래내역 참조).

<표 6.> 글로벌리스의 영업성과 비교

(단위: %)

	2001			2002			2003			2004		
	글로벌리스	순위*	동종업종 평균	글로벌리스	순위*	동종업종 평균	글로벌리스	순위*	동종업종 평균	글로벌리스	순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순이익율	3.29	135	-6.42	7.56	118	-0.46	6.98	132	-1.50	7.72	142	6.77
매출액 영업이익 율	4.71	171	1.99	9.56	116	2.54	7.23	173	4.00	5.43	216	7.2

주: 외감이상 운수업을 영위하는 총 444개 회사 중 순위 [출처:Kis-line]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 글로벌리스 사이의 각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글로벌리스가 각 피해회사별로 받은 영업이익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7.> 글로비스가 각 피해회사로부터 얻은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의 영업이익률
2001	매출액	85,351	41,027	41,787	4.71%
	영업이익	4,020	1,932	1,968	
2002	매출액	147,514	74,220	75,191	9.56%
	영업이익	14,102	7,095	7,188	
2003	매출액	210,534	117,517	89,646	7.23%
	영업이익	15,222	8,496	6,481	
2004	매출액	311,790	153,095	108,467	5.43%
	영업이익	169,930	8,313	5,889	
영업이익 합계		50,274	25,837	21,528	-

나.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

글로비스의 설립과 유상증자를 포함해 모두 50억원을 출자한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은 글로비스를 통해 배당수익으로만 2004년까지 피고발인 정몽구는 5,582,000,000원, 피고발인 정의선은 7,793,000,000원을 얻었습니다. 이어 2004. 11. 피고발인 정몽구는 보유 지분 4.85%, 피고발인 정의선은 보유 지분 20.15%, 합계 25%의 지분을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하여, 각각 204억원, 847억원의 매각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글로비스 주식이 2005. 12. 26. 거래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은 각 4,000억 원대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거두었으며, 결국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은 글로비스 주식으로 인하여,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 8.>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의 글로비스 투자로 인한 이익

(단위: 백만 원)

	시기	내용	주당 가액(원)	정의선	정몽구	계
현금유출 (1)	2001.2	회사설립	5,000	- 1,502	- 1,001	- 2,503
	2002.7	유상증자	5,000	- 1,498	- 999	- 2,497
	소계			- 2,503	-2,497	- 5,000
현금유입 (2)	2004.3	2003년 배당금		6,000	4,000	10,000
	2004.11	주식매각	14,170	85,658	20,617	106,275
	2005.3	2004년 배당금		1,793	1,582	3,375
	2006.4	2005년 배당금		1,793	1,582	3,375
	소계			95,244	277,81	123,025
주식평가액	2006.1.2 (3-1)	상장 1주일 후	69,000	824,858	727,642	1,552,500
	2006.3.24 (3-2)	압수수색 직전	47,000	561,860	495,640	1,057,500
	2006.4.10 (3-3)	고발일 전일	41,000	490,133	432,367	922,500
평가 이익	(3-1)+(2)-(1)			1,670,525		
	(3-2)+(2)-(1)			1,175,525		
	(3-3)+(2)-(1)			1,040,525		

다. 손해액

각 피해회사별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글로비스 설립시인 2001. 2.부터 현재 까지, 글로비스가 각 피해회사로부터 얻은 영업이익과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이 글로비스 주식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각 피해회사 별로 나눈 금액의 각 합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 보면, 글로비스는 2001. 2.부터 2004년 말까지, 현대자동차로부터 50,274,000,000원, 기아자동차로부터 25,837,000,000원, 현대모비스로부터 21,528,000,000원, 합계 97,639,000,000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은 이로 인하여 글로비스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 주식매매

차익, 주식평가차익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인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결국 피고발인들은 글로비스와 피고발인 정몽구, 정의선으로 하여금 함께 1조 97,639,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10. 결론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과 글로비스의 운송, 물류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및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 4. 11.

고발인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